

文學과 宗教

—獨逸基督教文學理論과 文學神學—

金 哲 子

(독어독문학과 교수)

(I)

이 論文은 대략 1970年 後半期부터 獨逸大學에서 獨逸文學內的 한 새 研究分野로서 취급하고 있는 〈文學과 宗教〉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독교가 그들의 主된 종교때문이라기 보다는 20세기 후반기의 극도로 혼란스런 인간사회의 상황때문에 文學神學과 基督教文學에 대한 研究가 활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分野의 研究는 아직도 초창기에 불과하여 研究論文이나 저서는 많지 않다. 특히 이곳에 있어서 이 分野研究書를 조사 수집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 때문에 이미 수집된 약간의 연구제료를 가지고 완전한 全體 파악은 불가능한채로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비록 그 연구영역이 초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독교文學理論과 함께 文學神學에 대한 理論들부터 조사 정리하기로 한다. 앞으로 이 分野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구입되는대로 보충해야 할 것임을 전제로 言及해 둬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本人의 關心은 基督教眞理와 文學理論에 대한 知識을 전제로하는 기독교文學研究를 作家들의 作品에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있다.

〈文學과 宗教〉의 研究分野가 독일에서는 Karl-Josef Kuschel 이 Tübingen 大學에서 그의 學位論文을 〈독어사용의 현대文學에 묘사된 예수 —Jesus in der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를 쓴 以後, 그의 스승인 Hans Kung교수와 Walter Jens교수와 함께 활발하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Tübingen 大學校 神學部에는 〈神學과 文學〉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1984年 5月에는 70명의 作家와 文學者와 神學者들을 초빙하여 국제 심포지움을 〈神學과 文學, 20세기에서 대화의 가능성과 그 한계선 —Theologie und Literatur. Möglichkeit und Grenzen eines Dialogs im 20. Jht.—〉이란 題目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것은 學問의 空間에서 그동안 너무 등한시되어온 神學과 文學의 상호영역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라 했다. 오늘날의 人間性과 괴라는 극심한 위기적 現實앞에서 새로운 人生의 의미지평선을 文學과 神學의 상호공동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作品內在의인 文藝學的 研究方法의 협의성이 증명되면서 그리고 또 美的 文學研究方法外에 다른 要素의 모색이 활발해진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1981년에는 Münster에 있는 Droste 研究會와 Wurzburg에 있는 Eichendorf 研究會가 공동으로 〈文學과 宗教〉라는 제목으로 Münster 大學校 카톨릭

社會大學에서 크로쿠비움을 가졌었다. 이것은 수세기 以來로 文學과 宗教가 어떤 生産的인 긴장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文學者들과 神學者들이 이 事實에 대하여 공동대화의 광장을 갖기 위함인 것이었다고 한다. 이 모임의 第一部에서는 文學과 宗教의 근본적인 관계를 취급했다. 第二部에서는 個別 文學作品과 文學的인 問題性에 관하여 토의되었다.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상론된 것은 주로 文學텍스트가 宗教의 서적보다 人生問題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여기에 참석한 독일의 저명한 獨文學者인 Benno von Wiese 교수는¹⁾ <異敎와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본 文學에 대한 견해 —Gedanken zur Dichtung unter den Aspekten von Häresie und Utopie—>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를 했다. 거기에서 von Wiese는 近代서구라파에서는 모든 宗教的인 文學은 아마도 異敎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 그 理由는 文學이 상징으로서, 형태와 내용의 통일안에서 文學의 眞理를 전승된 전통이나 기독교 儀式의 言語研究에서 實現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깨를 나란히하여 그들의 비유와 상징을 그리고 그들의 책들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의 文學이 구속력없는 허구 이상의 것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들 自身의 眞理를, 詩人의 眞理를 文學을 통해서 대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文學의 큰 異端性은 이단종교의 확신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文學自體의 해방안에 내포된 요소라고 한다. 詩人이 自身을 “世界의 心臟”으로서 표명하는 그곳에 그의 詩作으로서 그리고 그의 詩作을 통해서 어떤 고유한 종교적 요구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文學은 부지중에 또한 원치않은 중에도 이미 異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von Wiese가 要求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하는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 신앙을 상실해 가며, 솔직히 말해서 技術化와 理性化로 인해 질식하고 있는 이 社會에서 宗教와 文學이 自己들의 位置가 종말론적 파멸의 가능성으로 둘러쌓인 이 世上 한 복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出生과 죽음의 신비를 억압이 아니라 人生의 모든 時間을 초월한 근본현상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서 가능한 의미부여를 하도록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von Wiese는 文學과 神學이 실상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文學과 神學의 공동과제를 한편에서는 기독교神學이 文學的인 이단을 그 배신의 경계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詩人쪽에서는 얼마나 그들의 眞理가 世俗的인 것을 넘어서 유익한 것으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神學者들과 信徒들이 詩人의 진리에 계속 무관심으로 머물거나 또 바꾸어서 詩人들이 神學的인 것을 단순히 공허한 잔소리로서만 취급한다면, ‘西歐文化’라는 이 너무나 비장한 말로써 표현된 영역이 아주 짧장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 Benno von Wiese: Gedanken zur Dichtung unter den Aspekten von Häresie und Utopie-In: Hg. von H. Koopmann/W.W.: Literatur und Religion. Freiburg/Br. 1984. vgl. S.9-21.

(Ⅱ)

獨逸의 基督教文學理論과 文學神學에 관한 研究들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基督教文學’—Christliche Literatur—이라는 낱말의 개념이 歷史적으로 어떤 意味로 사용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Dorothee Sölle²⁾는 그녀의 教授資格論文인 <계몽주의 以後의 文學과 神學的의 關係研究>에서 獨逸作家 K. Philipp Moritz와 Jean Paul과 Alfred Döblin 등의 作品들에서 文藝學과 神學的의 境界선 영역을 分析하리 했다. 그래서 그녀는 宗教적으로 理解될 수 없는 文學作品속에서 宗教的 言語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다. 作品內在의인 해석방법을 극복한 意味에서 그녀는 ‘宗教的 言語’의 흔적으로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니면 存在하더라도 ‘宗教言語’로써는 말해지지 않는 어떤 심미外的인 것의 實現, 즉 宗教的인 것에 대해서 指示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文學에 있어서 ‘宗教的 言語의 機能’은 傳承된 宗教言語가 해석·표현해낸 것을 世俗적으로 實現한 것이라고 定義했다. 文學에 있어서 이와 같은 神學的 解析의 근본개념 앞에서는 基督教文學에 대한 개념과 世俗化라는 개념의 한계가 지워져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世俗的인 통속소설을 ‘카토릭文學’이라든가 ‘新敎文學’이라고까지 칭하게 된 것은 1900년에 처음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1950년以後 부터는 기독교적인 것을 이 兩宗派의 區分없이 기독교文學이라는 개념하에 합쳐졌다. Sölle는 기독교적인 것을 그 素材나 內容이나 테마에서 규정짓지 아니하고, 文學속의 精神에서 보려고 한 것이었다.

‘기독교文學’이나 ‘기독교作家’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용의하지 않다. 그 理由는 작가나 비평가나 독자가 바른 기독교신앙과 그 정신과 眞理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을 前題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 精神은 神學的인 것인데 人本主義的인 것, 宗教的인 要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一般宗教的인 作品이 基督教文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40여년의 긴 研究업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基督教文學과 그 理論研究에서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G. Kranz의 理論³⁾을 정리한다.

Kranz는 ‘文學’—Literatur—이라는 용어를 출판된 것으로 영향을 끼치는 텍스트들을 칭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Christlich—이라는 表現으로써는 모든 洗禮敎人들에 依해서 그리고 모든 時代와 場所에서 믿어졌고 행해진 바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2) Dorothee Sölle: Realisation. Studien zum Verhältnis von Theologie und Dichtung nach der Aufklärung. Darmstadt 1973.

3) G. Kranz: Zur Geschichte des Begriffs “Christliche Literatur”, vgl. S. 2-9.

‘기독교文學’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文學的 表現이 個個 作家의 性格, 文學장르, 言語, 환경, 사회, 시대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分明히 基督教文學은 존재해왔고 音樂, 조형미술, 무용 등의 他 藝術과 함께 앞으로도 기독교文學은 하나님과 사람과 世上에 대해서 기독교의 眞理와 그 理解와 精神과 삶을 계속 묘사해 갈 것이다. Kranz는 오랜 세월동안의 연구에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기독교신앙과 정신, 사상과 삶의 表現은 啓蒙主義時代 以後부터, 특히 20세기에 와서는 더욱 희소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Kranz의 주장은 한 作品이 기독교眞理를 全體的으로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文學의 최고수준급에 속하는 作品들까지도 기독교적인 것의 우수한 面과 함께 또한 잘못된 요소들을 겸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비록 作品들마다 기독교精神과 위배되거나 왜곡된 部分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 개별 文學作品들은 기독교眞理에 대한 하나의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例로써 Dante와 Thomas v.A.의 作品들은 기독교文學의 頂點을 이루고는 있으나 역시 절대적인 것은 결코 못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Kranz는 基督教文學의 定義는 기독교信仰과 그 精神, 思想과 眞理가 묘사된 모든 저작물들을 통합한 것을 칭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현상을 그는 크게 時代別로 區分하면서 古代기독교文學과 現代기독교文學은 결코 中世기독교文學이 表現하지 못한 것을 表現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文學이라고 칭할 수 있는 作品이란, 그것이 어떤 장르를 취했던 또 무슨 테마를 지녔던 간에,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理解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존재하는 人間과의 關係가 기독교적 宇宙觀, 世界觀, 人間觀을 分明하게 기독교 眞理에 비추어 말하고 있는 作品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독교眞理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正當한 해설이 不可能한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文學研究의 自己分野와 그 重要性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基督教文學의 種類를 Kranz는 크게 3種으로 分類하고 있다.

첫번째의 類型은 기독교作品이 기독교內部的 必要를 위하여 생겨진 것들을 말한다. 이것은 기독교人들에 依해서 기독교人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이 部類에 속하는 저작물들이란 첫째 禮拜儀式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로서 찬송가, 기도문, 使徒의 便紙, 福音구절, 殉教者의 行적, 송가, 찬송가가사, 설교들을 손꼽았다. 두번째로는 個人家庭에서 쓰여지는 것으로서 聖譯, 경전을 위한 저작물, 가족앞에서 낭독을 目的으로 한 靈的 作品, 그리고 個人의 독시물들을 칭하였다. 그외에도 學校에서 必要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信仰문답서, 神學서적, 교회사 등의 저서들을 꼽았다. 또 여기에는 共同단체기관에게 必要한 저작물로서 密敎司祭의 지서들이 있다. 이같은 저작물들은 모두 하나님찬양과 신앙지도 및 신앙성장을 위한 봉사를 目的으로 한 것이고 또한 기독교인의 靈的 삶을 指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두번째 類部的 기독교文學이란 敎會 外部的 必要를 위한 것이다.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非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이거나, 혹은 뫼박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쓰여진 저작물이 있다. 선교설교집, 변호저서, 비기독교적인 立場과 화해하기 위한 神學的 혹은 哲學的 저서, 개종자들을 위한 성서얘기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도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앞 空間에서 행해지는 演劇物이 있다. 中世宗教劇, 神秘劇, 奇蹟劇, 中世의 敎訓的 宗教劇, 또 바로크時代의 순교자劇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위의 이 두 部類의 기독교文學은 그것이 教會內部的 삶을 위한 것이든, 教會外部의 삶을 위한 것이든, 통례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집필한 것이다. 기독교文學中에 이런 개념의 作品들은 1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기독교적 저작물들을 포괄한 것이다.

세번째 部類의 기독교文學은 12세기以後의 作品들을 말하며, 이것의 저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교회의 위탁과 봉사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自由스러운 참여의식에서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 한 例로써 Wolfram von Eschenbach (1170~1220)의 작품 <Parzival>을 들었다. 이 作品의 테마는 이 世上에서의 騎士의 使命을 다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빛 안에서 묘사되었다. 18세기경부터는 기독교文學의 저자가 평신도들 가운데서 더욱 왕성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기독교文學의 폭과 넓이가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기독교文學의 개념도 여기에 맞추어 넓게 포괄적인 것이 되었다. 이 種類의 기독교文學은 단지 그 내용이나 素材나 테마로써 표현됨을 넘어서 기독교精神의 產物들이라 했다. 그때문에 기독교文學이나 아니냐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眞理에 정통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文學의 價値를 評價할 수 있는 文藝學에 대한 바른 知識과 훈련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Ⅲ)

基督教文學의 理論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基督教적인 것’ —Das Christliche—⁴⁾의 表準이 어떤 것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基督教文學의 한 構成要素는 作家의 意識속에 살아있는 기독교적인 것과 그의 作品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적인 것 바로 그것이다. 以前에는 기독교文學을 文學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일련의 批評家들도 있었다. 그러나 作家들이 ‘藝術을 위한 藝術’의 立場을 극복하고 참여文學을 요구하게 된 以來로, 그리고 文藝學도 文學을 다만 그 심미적이고 형태적인 觀點으로만 고찰하려는 立場을 벗어난 以來로, 作品內在의 解釋方法에 많은 요소가 결핍되어 있음을 시인하게 되면서 ‘信仰’을 文學의 한 構成要素로서 고찰하려는 見解가 수용되었다. 그리고 ‘信仰’이 文學의 藝術의 水準을 해치는 要素가 아닌 점도 인정되

4) G. Kranz: Das Christliche als Kriterium, S.10-22.

있다. 기독교文學研究의 立場이 그렇다고 다른 文學構成要素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독교文學이 文學으로서 훌륭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作家의 信仰에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作家의 취미와 상상력과 구성능력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信仰은 才能의 어떤 代用物이 아닌 것이다. 훌륭한 文學은 종교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의 대표적인 表現으로서 Kranz는 Gottfried Benn의 見解, “하나님은 한 나쁜 樣式原則”이라는 主張에 다음과 같이 反論하였다. “틀림없이 한 쪽의 잘 그려진 당근의 靜物畵는 잘 못 그려진 마리아 人物畵보다는 훨씬 좋은 作品이다. 그러나 잘 그려진 어떤 마리아人物畵는 한쪽의 잘된 당근의 靜物畵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 理由는 마리아人物畵는 필연적으로 靈의 要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藝術的인 質을 前題로 하기 때문이다.” 文學作品中에서 勿論 위대한 基督教文學은 드물다. 그 理由는 基督教文學은 啓示의 빛아래에서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빛때문에 훌륭한 文學作品에 그 精神的, 審美的 그리고 實存的인 前題들이 필요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反對가 된다. 다만 보이는 것을 表現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靈的인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보다는 여리가저로 더 용이하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는 事實이다.

文學에서 基督教의 參與와 素材에 관해서 고찰해 본다. 기독교의 참여문제는 결코 기독교의 素材나 테마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勿論 Dante의 <神曲>이나 Hopkin의 <聖靈>이나 Mauriac의 <罪人들>, 그리고 Droste의 <깃세마네> 같은 作品은 기독교의 素材와 테마를 잘 조화시킨 기독교作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素材나 小道具들을 使用했면서도 전혀 기독교文學이 아닌 作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例를 Kranz는 Shaw의 <거룩한 요한나>, Schiller의 <마리아 슈트아르트> 등의 作品을 들었다. 또 다른 面에서는 Gogol은 <검사관>이나 <죽은 영혼들> 속에서 진연 宗教的 素材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文學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Kranz는 基督教文學의 기독교적인 것이란 그 素材에 있지 않고 그 精神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基督教의 精神은 言語에서 인식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기독교精神과 言語가 진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하늘’, ‘은혜’, ‘죄’ 같은 낱말이 텍스트속에 종종 나오는 作品들도 基督教文學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18세기 以後로 聖書의 言語의 禮拜의 낱말들이 世俗的인 方法으로 使用된 作品들이 많다. 그것들은 宗教的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때로는 그런 낱말들이 反基督教的인 意圖에서 사용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다른 쪽에서는 기독교의 낱말 없이도 기독교의 意圖아래서 쓰여진 作品들도 있는 것이다. 기독교文學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言語와 素材가 기독교적인 것을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표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다른 표준이 있는가? 경건한 感情도 그 표준이 못되며, 倫理的인 道德意識도 표준이 아니다. 다른 宗教나 人本主義도 그런 것을 배척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니요, 그 본질이 단순한 人間的인 倫理的

善行에 있지도 않다. 기독교精神은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것이다. 基督教信仰은 다른 어떤 人間的 信念과 다르며 하나님의 계시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그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作品을 고찰하면, 그것은 全體的으로나 아니면 部分的으로 혹은 명확하게 혹은 함축성있게, 혹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서 묘사된 것을 분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종 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 理由는 일반적으로 통속적 개념인 '기독교적'이라는 낱말을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예의바른'과 同義語로 사용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심지어 Goethe의 作品이나 Hölderlin의 것을 기독교적이라고 칭하기를 거부하는 立場에 대해서 불쾌한 反應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기독교적인 것을 일반 종교적인 것과 혼돈하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인습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기독교를 옆으로 들은 사람들은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별못하고 있다. 170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라파와 美國의 많은 作家들은 理論論者들이거나 汎神論者들이며, 그래서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것이다. 文學研究의 한가지 과제로서 이 區別은 價値評値가 아니라 確證하는 일인 것이다. 基督教的인 것을 識別하는 표준을 모색하면서 Kranz는 다음의 몇가지 부정적 質問을 가지고 試圖했다. 한 作品이 만약 그 時代精神과 질서에 대해서 거리가 없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님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基督教文學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종말론적 경륜에서 범사를 보며, 항상 그 時代의 우상들과 이테올로기와 對立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人間觀과 信仰에 대한 어떤 왜곡과 훼손에도 저항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Kranz는 다른 시금석으로서, 만약 作品속에 유미가 결여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 作品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님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미는 기독교의 겸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人間弱點에 대해서 용인하는 미소는 自己自身の 弱點을 알며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Kranz는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적 유미와 기독교의 겸손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 기독교의 겸손에는 人間弱點을 단순히 인지,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이는 감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Kranz는 또 다른 試金石으로서, 만약 作品속에 경쾌함이 결여되어 있고, 엄숙하게 짓눌러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宗教的 代理物이라고 한다. 이같은 Kranz의 見解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의 경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기쁨과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밝음이기 때문이다.

만약 作品속에 교리문답지식이 직접적으로 발견되면 그것을 우리는 文學이라고 칭할 수 없다. 信仰이 예술작품의 비전으로 바뀌어져야 文學이며, 입을 때에 그속에서 신앙의 一面을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해서 우리는 기독교眞理나 아니면 迷信이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숙고하게 된다. 이 分野에서 40年間의 研究에서 Kranz는 말하기를 구라파의 作家로서

기독교적인 것을 소위 어떤 화학반응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묘사한 作家는 없었다고 했다. 그 理由는 지금까지 글을 쓴 모든 크리스찬 作家들이 기독교外的인 것이나 非基督敎的인 것의 영향아래 실이 왔기 때문이며, 또 基督敎가 唯一한 精神力이던 그런 文化가 구라파에 없었고, 하물며 기독교時代라고 알려진 中世에도 없었기 때문이리 한다. 그리고 未來에도 순수한 기독교社會나 기독교文化는 이뤄질 가능성이 없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구라파 文化生活은 中世와 近代에 걸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회합적인 것과 로마적인 것, 게르만적인 것과 켈트적 異敎, 유대敎, 이슬람敎, 靈知主義, 마니敎, 그리고 汎神論과 無神論 등이 강력하게 함께 작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0세기에 와서는 더하여 佛敎와 다른 東洋宗敎의 영향까지 합세하여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산 속에는 비기독교의 思想들을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 例로서 Kranz는 Bohme, Jung-Stilling, Swedenborg, Beader, Novalis, Tolstoi, Unamuno 그리고 Daisne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全作品은 그 一部分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見解들만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라파內에서는 또한 기독교世界觀이나 倫理觀의 어떤 要素를 自己 것으로 만들고 있지않는 그 어떤 비기독교 作家도 없다는 것이다. A. Gide, J. Joyce, 심지어는 동독의 서사극 작가 B. Brecht에게서 까지도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와는 反對로 기독교外的인 要素들이 T.S. Eliot, Ungaretti, Mistral 등에서 까지도 찾아내어 진다는 것이다. 수백년 前부터 그들의 기독교에다가 공산주의사상을 융합시키려는 많은 作家들이 있어 왔다. 더우기 기독교적인 것의 표준을 찾기가 힘든 理由는 오늘날 神學者들사이에에서도 그들의 宗派間에 상이한 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기독교文學'의 개념은 불명료한 것이라고 간주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精神科學의 다른 모든 分野에서도 이같은 불명료성은 그 접근방법이하에 따라서 불기피하다. 文藝學에 있어서 그 樣態概念으로서 '바로크', '표현주의'나, 장르개념인 '소설', '노벨레', 시대개념인 '中世', '르네상스', '낭만주의'들에 대한 論爭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유사한 현상들의 구분 시도나 더 면밀한 구분시도는 용이하지 않는 문제로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영역에는 논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가 기독교文學에도 해당된다. 이같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독교文學을 배척할 수는 없다. 더우기 무모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독교적인 것의 표준을 研究하면서 Kranz는 作家의 意圖를 또 하나의 試金石으로 세웠다. 勿論 作家自身이 단호히 비기독교人으로 자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作家의 意圖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神學的 論文, 에세이, 自己해석, 작품초안, 서신들, 일기 책, 대화나 인터뷰기록물 속에서 숨기지 않고 表現된 것들을 그들의 作品해석의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 作家들이 그들의 주변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것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信者인 作家들은 주위 사람들의 삶에서 기독교인이 도달해야 할 참 모습과 그들의 현실사이의 부조화를 본다. 비기독교작가들은 주

위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자칭하고 있는 자유와 그들의 실상인 不自由 사이의 부조화의 문제들을 보고 있다. 이 불균형, 부조화는 가슴아픈 일이며 속상한 문제다. 그런데 이같은 삶의 부조화 앞에서 비기독교작가는 분노하거나 슬피히는 태도를 보여주고, 기독교작가들은 오히려 초월하는 웃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신자들에게는 人生과 삶에 대한 소망이 人間의 能力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能力안에 있음을 잘 지적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分明히 지시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기독교적인 것의 표준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初代教會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신앙의 眞理는 전통적인 것으로서 同一한 신앙뿌리 위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무리 人間理性이 자기마음대로 變化시켜 보려고 해도, 聖靈에 의해서 조명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이것이 표준이 되는 한, 기독교文學의 인구 분석은 가능한 것이 된다. 聖靈의 빛아래 있는 구라과作家, 독일作家들이 너무 적은 것도 안타까운 事實로 함께 지적해 뒤야할 문제이다.

(IV)

獨逸에서는 1960年 중반에 와서 作品內在的 研究方法이 그의 狹義性으로 인하여 그 獨步的인 位置가 퇴색해 지면서 文學에 영향을 끼치는 作品外的인 要素들과의 相互關係研究가 여러 方面으로 확대해 갔다. 이미 많은 研究業績이 나온 ‘文學社會學’이나 ‘文學心理學’처럼 1975年頃부터 ‘文學神學’—Literaturtheologie—이라는 새로운 文藝學的 方法이 기독교文學을 연구하는 理論으로 모색되고 있다. 文學神學理論은 아직 몇사람밖에 연구논문을 내고 있지 않는 새로운 分野이다. 거리상 작은 연구기사들은 찾아 모으지 못했고, 여기서는 중요한 두편의 연구를 간추려 정리한다. 그것은 크르쾨른 Ernst Josef Krzywon⁵⁾의 研究論文들과 크란츠 Gibert Kranz⁶⁾의 저서이다.

Krzywon은 1974년에 Jens Ihwe의 <文藝學에 있어서의 言語學>⁶⁾이란 學位論文에서 발상을 얻어서 文藝學과 神學的의 相互關係를 고찰했다. 이 學問理論의 기본원칙은 文藝學을 위해서와 함께 神學을 위해서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立場에 서 있다. Krzywon은 또한 Leo Pollmann⁷⁾의 저서 <文藝學과 方法>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설적 문학신학’—Hypothetische Literaturtheologie—이라는 명칭으로 文藝學 內部에 존재하는 한 명백한 神學的의 問題認識에 관해서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文藝學 內部에서 神學的으로 조사된 文學의 素材研究, 動機研究, 테마研究, 主人公研究와 더불어 文學과 神學間的의 合一點과 접촉점들을 찾아내는 研究이다. 그리고 이 研究는 한편에서는 讀者의 기대지평연구인 수용인

5) E.J. Krzywon· Literaturwissenschaft und Theologie. In: Stimmen der Zeit. Bd. 193, 1975. vgl. S.199-204. Bd. 192, 1974. vgl. S.108-116.

6) G. Kranz: Literaturwissenschaftliche Relevanz der Christlichen Literatur vgl. S.32-46.

7) Leo Pollmann: Literaturwissenschaft und Methode. Frankf/M. 1971.

구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편에서는 詩人, 作家, 文藝學者, 神學者, 文學者의 연구가 있다.

‘文學神學’이란 개념을 文學에서 神學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다른 一分野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文學神學은 사회학을 위한 관계에 있는 文學社會學과 같은 立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한 神學이 아니라 그 對象에 있어서나 그 方法에 있어서도 文藝學과 마찬가지로 文學神學도 역시 言語藝術作品을 심미적 대상으로 관심을 갖지만 첨가, 보충하여 작품초월적인 神學的인 分析의 見解를 가지고 연구하려는 것이다. 심미적 작품비평과 아울러 가치판단과는 구별된 신학적 작품비평을 밀하는 것이다. 모든 言語作品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感動시키는 한 神學的 상황을 불러 일으킨다. 또 바꾸어서 어떤 신학적 상황은 하나의 언어예술품을 발생하게 한다. 勿論 文藝學과 神學의 소통과정은 文藝學과 社會學 사이에 있는 것처럼 뚜렷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文學神學에는 文學自體안에 즉 예술문학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적 인식들의 저장물을 보호하고 또 그 신학적 중요성과 의식을 분석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자 하였다. 이것은 文學神學이 文學特有的 해석학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 出發點으로서는 상이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文學神學의 한 出發點은 現實고찰시각에서 의미부여를 시도하려는 포괄적인 정신적 운동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出發點은 Lucien Goldmann의 文學社會學과 유사한 方法으로, 言語藝術作品을 神學的一歷史的 發展의 關係에서 고찰하며 그리고 일련의 사람들을 神學的一宗教的 삶과 연관지우는 것이다. 작품의 구조는 특정 社會와 時代의 일련의 사람들의 神學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Krzywón은 神學이라는 개념을 宗教라는 개념과 구별하며 기독교적이라는 것과는 區別하여 사용하였다. ‘神’이란 개념도 그것이 신비적이든 유대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간에 여기서는 文學의 지평선에서 한 동일된 文學의 神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Krzywón이 세운 文學神學의 研究영역은 神에 관해 文學의으로 실현된 얘기, 즉 神學的으로 자격을 가진 言語藝術作品을 말한 것이다. 言語藝術作品의 경험관심과 인식관심은 神學的으로 동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부를 위해서 중요한 범위내에서만 그 합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神에 관한 文學의으로 實現된 얘기가 특별히 기독교적 감명과 색조속에 나타나 있다면, 그것은 그 作家의 기독교적 자질에 관해서 말해져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宗教的 重要性이란 社會的으로 말해서 기독교적 삶의 영역과 이해영역을 초월해 있는 市民들의 부분을 얻어야 하며, 종교성의 모든 현상들에 확대되어 있는 것을 말했다. 이에 따라서 宗教的 資格이란 文學的으로 실현된 종교와 종교적 가치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資格은 다시금 基督教의 神과 人間과 世界理解와 삶의 完成에 관해 文學的으로 實現되어 진다. 이같이 Krzywón은 宗教的, 基督教的, 神學的 資格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文學과 神學의 접축점을 Krzywón은 영감과 판타지라고 한다. 이것을 文學的 見解와 神學

的 見解를 비유화하는 두 要素인 동시에, 豫言의 현상과 비전의 현상을 고려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접촉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文學神學的 資格의 징후와 표시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그런데 영감과 판타지와 에인과 비전이라는 개념들로써 구분된 이 영역은 文學神學的 범주內에서 神學的으로 맞추어진 특히 文學心理學的 課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

文藝學과 神學, 이 두 學問分野를 위한 영역의 研究는 매우 중요한데 그 理由는 이같은 課題는 오직 文學神學的 方法의 범주內에서만 극복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文學神學的 研究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한편에서는 神學的 知識의 자격과 다른 한편에는 言語文學의 자격을 함께 소유하는데 있다. 중요한 文學神學的 텍스트의 이해와 인식은 그 때문에 한쪽에서는 흥미와 인식가능한 讀者의 意圖와 다른 편에는 판단과 가치평가에 흥미를 느끼는 비평가의 의도안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로써 文學神學的 資格은 作家와 讀者와 批評家가 만나게 되는 이상적인 수렴점이 되며, 아울러 文學批評과 神學的으로 자격있는 영향미학과 수용미학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文學神學的으로 중요한 言語藝術作品의 品質과 價値는 비록 作家의 文學神學的인 資格과 솜씨에 의해서 규정되면서도, 만약 다른쪽에서 즉 수용자가 文學神學的 資格이 미달되거나 결여되어 있다면, 그 작품은 인식되지 못한채 머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Krzywon은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특별히 기독교의 교회와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文學神學的 資格을 그들의 회원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깨워 주어서, 사람들이 言語藝術作品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이 分野의 研究를 위해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G. Kranz의 基督教文學에 관한 文藝學的 課題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基督教文學은 여러 學問分野를 위하여 重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理由는 文化史와 精神史를 위해서는 기독교문학이 그들의 근원에 속하기 때문이요, 比較宗教學과 社會學과 心理學을 위해서는 이들 學問分野에 많은 재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요, 言語學을 위해서는 특수 언어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요, 藝術科學을 위해서는 기독교예술과 상호교차관계에 있기 때문이요, 教育學과 成人教育學을 위해서는 기독교문학이 교양의 보화이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기여는 역시 文藝學과 神學에 대해서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왜 基督教文學이 文藝學을 위해서 重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함으로써 기독교문학과 문예학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문학이 문예학을 위해 중요한 요인중 한가지는 Buchner나 Nietzsche나 Brecht 같은 作家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작가들의 기독교에 대한 사전지식, 그것을 모르고는 바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만 그들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소외시키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조롱하며, 혹은 대립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기독교텍스트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독교문학의 문예학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성은 중요한 文學史的 連關性이 基督教文學의 지식을 통해서 명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受容研究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넓은 讀者層이란 文學作品을 심미적인 특성때문이 아니라 宗教的이고 덕망적인 것의 포괄적인 면 때문에 책을 읽게 된다. 勿論 독서물에는 인간교양과 상관없는 저속문학은 제외된다.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문학, 즉 성경과 인격에 양식이 되는 문학은 16세기에서 19세기에 들어서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출판되었다. 基督教文學은 그때문에 가치가 가장 저렴했고, 대중들이 책이라고 사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독서물이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일하고 집중적이며 종종 여러번 반복되어서 읽게 된 독서물이었다. 文學發展史에 대한 이 事實의 影響은 지금까지 과소평가된 바다. 最上의 作品들은 종파를 초월해서 널리 보급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작품들이 기독교적 내용때문에 여러 言語로 번역되었다. 기독교문학의 文藝學을 위한 또 다른 重要性은, 기독교文學이 처음부터 古代 非基督教文學장르를 變形시켰고 그리고 기독교문학 內部에만 있는 새로운 文學장르를 형성했고 비기독교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그것이란 '복음'이란 문학장르로서 시작하여, 예수수난사, 순교기록물, 聖人傳, 논박문학, 설교, 성경문학 그리고 교양문학들이다. 특수한 기독교적 形式과 장르들이란 詩分野에 있어서는 찬송가가사, 시가, 송가풍의 종교歌, 미사울릴 때의 정숙한 기도문, 그리고 흑인靈歌들이 있고, 드라마分野에서는 宗教劇, 奇蹟劇이 있고, 서사문학分野에서는 聖譚, 聖人傳, 幻想文學 등이 있다.

言語學이나 소통과학쪽으로 조사하는 文藝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기독교文化가 시작된 時代에 형성된 基督文學의 研究가 매우 얻는 바가 크다. 여기에는 비록 文化史的으로나 혹은 神學的으로 조사되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言語學과 社會學的으로 마추어진 文藝學의 합법적인 對象의 同化問題가 규칙적으로 대두된다. 어떻게 여러 作家들이 이 同化문제를 실제로 해결했느냐, 아니면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하는 것과 전혀 해결 못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초기 기독교, 희랍 및 라틴쪽의 文學과 초기기독교적 게르만 文學과 그리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리틴이메리카 및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선교문학들이 수많은 범례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 우세하게 기독교적인 文化가 지양되는 그곳, 예로써 18세기 이후의 구라파에도 다시금 대두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작가들은 어떤 言語手段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멀어진 사회를 획득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경우에 文藝學者들에게는 특별한 과제가 생겨난다. 한편에서는 기독교적 종교적인 言語를 단념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적으로 이해되고 기독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作品들과, 또 한편에선 기독교적 종교적인 言語를 훨씬 많이 使用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결코 기독교적으로 理解될 수 없고, 심지어는 反基督教的으로 참여하고 있는 作品들을 分析하는 일이다. 後者의 유형에 속하는 作品들을 취급하는 사람은 기독교文學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런 文學들도 神學的인 要因은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無神論은 하나의 神學的인 현

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非基督教文學도 文學神學의 對像이 될 수 있다. 文學神學은 文學社會學이나 文學心理學과 유사하게, 文藝學內部的 한 部門으로서 여러 方面으로부터 研究되어 진다. 폴란드國의 루브린 Lublin大學에는 이미 전반의 文學을 포괄하며 神學的인 觀點에서 分析하고 解析하는 이 영역을 위한 특수研究所가 있다. 기독교文學은 文學神學의 재료목적內에서의 한 部門이다.

基督教文學은 특별히 比較文學을 위해서 유익한 연구대상이다. 多樣한 素材史的 및 모티브史의 方法으로써 같은 素材나 같은 모티브를 취급한 多樣한 作品들속에 기독교적으로 의도된 形態들이 非기독교적인 形態들에서 分離되어질 수 있다. 특별한 장르들과 形式들에게 기독교적 素材의 類同關係도 연구가치가 있다. 또한 前基督教의 形式들의 受容과 기독교적으로 의도된 比較文學을 위한 보람있는 과제이다. 예를들면 Horaz頌詩나 牧歌의 基督教化過程이 기독교인의 바로크 詩人들에 依해서 연구되어진 그런 方法으로 惡漢小說이나 탐정 소설이나 空想科學小說의 기독교화의 과정도 계속 연구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비교문학에 있어서 오늘날 많이 혼란된 研究과제인 ‘文學과 理想’은 기독교文學에게는 하나의 고마운 對像이다. 勿論 이 方向의 研究는 텍스트의 構造들을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人物形態의 構造처럼 形式의 현상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基督教文學을 연구한다는 것은 文體를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만이 기독교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의도함이 아니다. 어떤 文藝學者도 만약 그의 分析과 解析이 思想的인 것에 한정되며 言語研究나 藝術性的인 形式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文學作品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 基督教文學作品의 形式이란 文藝學者에게는 특별히 매력을 불러 일으킬 문제다. 만약 基督教의인 것이 傳統的으로 성경적, 신학적 혹은 예배의식적인 言語로 묘사되지 않고, 그 言語에 있어서나 構造에서나 심미성과 상상성에서 새롭게 肉化되어진 그런 文學을 다루게 될 때에는 더욱 매력적인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V)

여기서는 基督教的인 것의 표준을 讀者의 受容面⁸⁾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어떤 기독교作家는 자신의 意圖와는 反對로 讀者들이 비기독교적 作品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作品을 쓸 수도 있다. 어떤 作品이 受容者의 意識에 기독교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가지 理由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作家의 信仰에 너무 결함이 많은 경우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그 作品속에 實現되어 있는 기독교적인 것이 너무 빈약한 경우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受容者의 信仰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되겠다. 그런데 作家의 信仰未熟이나 作品속의 信仰未成熟은 대체적으로 기독교文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못된다. 왜냐하

8) G. Kranz: Die Aufnahme bei Christen, vgl. S.23-27.

던 기독교적인 것의 不足이 기독교적인 것의 不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것은 기독교적인 것에 어떤 결핍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독교적인 것이 전폭적으로 표현되지 못했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위에 기독교 독자층 自體內에서도 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결핍이니 결함에 관한 意見을 같이하기 어렵다. 또 기독교作家들도 그의 信仰의 빛깔과 특색이 자양자색이다. 그는 信仰의 全體性에서 自己에게 믿음의 된 그 眞理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自己가 받아 들일 수 없는 眞理는 그냥 방치해 둔다. 때로는 作家가 교회생활안에 있는한, 眞理全體를 왜곡시키지는 않지만 그 強調點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기독교眞理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作家들이 그 本質的인 면에 있어서는 異教徒들이라고 말해질 정도다. Kranz의 특색있는 主張에 의하면, 信仰의 全體的 實質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세월 속에서 포괄된 교회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각 시대의 기독교 신앙마다 강조된 特色이 있다. 그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독교作家를 결코 全體基督教信仰의 원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眞理를 다른 眞理보다 더 빛나게 표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作家나 哲學者나 神學者도 그가 증거하는 하나의 眞理만을 그의 全體作品에 계속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文學을 통틀어서 조망할 때 한 作家가 표현 못한 그 부분을 다른 作家가 보충하고 있음을 본다. 이 點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信者는 그의 신앙이 成長해 가기 때문에 한 眞理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필자가 다음 論文에서 실제로 研究하여 조사해 보아야 할 과제라 하겠다. 기독교와 기독교文學에 있는 신앙의 차이점들이 틀림없이 고통의 원인이지만, Kranz는 바울사도의 말——“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문제는 그리스도기 전파되는 그것이다”——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信仰의 모든 포괄적인 全體가 파괴됨이 없이, 個人的인 一方性和 狹小함을 극복하게 한다. 이런 方式으로 기독교文學은 어떤 同形의 모습이 아닌 극도로 매혹적인 多樣性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Kranz의 비기독교인들에 의한 기독교文學의 受容樣相에 대한 研究 및 理論을 종합한다. 비기독교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기독교信仰을 나누어 가지지 않지만 기독교文學을 읽고 감명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영향은 단순히 심미적인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기독교文學과 비기독교文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區分되어 있지만, 人間的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共通의이다. 기독교 信者들은 비신자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同一한 事件들을 통해서, 그들 時代의 同一한 고통을 통해서 또한 同一한 절망과 희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양쪽의 作家들은 고통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을 서로 교환한다. 기독교作家들은 비기독교作家들에게 받는 者이면서도 동시에 주는 者이기도 하다. 詩人들과 思想家들에 대한 기독교作家들의 영향은 널리 뻗고 있다. 人道主義 部分에 있어서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理念들을 받아들인다. 비록

그것이 계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기독교文學은 각 時代에서 어떤 새로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도전을 주었고, 또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그래서 行動으로서 動因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의 기독교文學의 업적들을 Kranz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독제와 제국주의와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로서, 마녀미신과 비관용성에 반대해서, 흑백을 가르는 노예제도와 프롤레타리아화제도에 반대하여, 전쟁흥미와 국수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기독교作家들은 일선에 서서 싸우고 있다. 第三世界의 궁핍에 내항해서, 人種分離와 信仰分離에 대항해서, 부당이익욕망과 환경훼손 및 소비태도들에 반대해서, 全能한 국가권위를 통한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과 비전성, 不自由와 억압에 반대해서 그리고 대중정보제도와 기술문화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16세기 이래로 기독교作家들과 비기독교作家들을 精神的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人間에 대한 關心이다. 人本主義가 人間을 中心에다 세우며, 人間다움의 理想을 추구하는 目的으로 세운 以後부터 구라파에서는 人間研究가 “人間의 本來的인 研究는 人間이다”(Das eigentliche Studium der Menschen ist der Mensch)라는 命題아래 왕성했다. 人間研究에 두각을 낸 사람들로 Kranz는 17세기에는 Pascal과 Charron을 18세기에서는 A. Pope, 19세기에서는 Goethe와 W.v. Humboldt를 열거하였다. 그런데 近代以來로 다른 한 便에서는 사람들이 초감성적인 것, 위에서 오는 빛을 동경했다. 그들은 人間的인 것만으로는, 그것에 비록 ‘아무리 높게 발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A. Sinjowski의 외침——“人間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해졌다. 이제 神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이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책들을 요구했다. 東洋의인 것을 研究하는 사람들도 기독교文學을 읽었고 지혜를 求했다.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 연구자들과 哲學者들이 기독교서적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기독교文學은 결코 금지된 게토(Getto)처럼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讀者들만이 기독교文學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文學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제 끝으로 기독교文學의 영향⁹⁾에 관해서 연구조사한 것을 여기에 정리한다. 文學이 人間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文學이 직접적으로 人間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文學을 읽음으로써, 아무리 지성적으로나 상상 및 감정으로 감동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믿음을 얻지는 못한다. 認識과 想像과 感性은 生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의 靈的인 만남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生命을 얻음이 구원인 것이다. 그 때문에 기독교文學이 그리스도의 代理物이 아닌 것이다. 다만 讀者에게 그들의 信仰生活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신앙지식을

9) G. Kranz: Wirkungen, vgl. S.28-30.

확인, 보충받으며, 수정 혹은 심화받는다. 의심을 거부하게 한다. 그리고 기독교文學은 기독교적 삶의 具體化된 形態를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自己中心的인 고집을 풀게 하며 利己的 我執에서 해방해주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者들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기독교文學은 초감성적인 것이다. 이것은 自己의 人間的 知識과 觀念에 폐쇄된 것을 보게하고 초월하여 自己겹질을 벗는 것을 돕는다. 이같은 기독교文學의 역할을 E. Herd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독교文學은……침례요한이 自己에게서 부터 떠날 것을 보여준 그 몸짓아래에 있다”(Christliche Dichtung...steht unter der Gebärde Johannes des Täufers, der von sich weg weist.)

이같이 기독교文學에서 수용자는 그가 이미 알고 體驗한 眞理를 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독교文學이 어떻게 讀者의 意識擴大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問題가 야기된다. 이런 경우에 그것은 효과적인 기능을 발한다. 즉 기독교적인 것이 이미 익숙한 聖書言語나 神學的이고 儀式的인 言語가 아니라 藝術的인 새로운 形態의 言語의 옷을 입고 묘사하고 있을 때에 공헌한다. 讀者들이 피상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眞理가, 어떤 새로운 것,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빛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믿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같이 해서 마음이 眞理를 받아 넓어진다. 좋은 기독교文學을 접하면 罪와 죽음을 지닌 世界와 그 歷史와 人間 삶의 숨은 진성이 마음에 열려 진다. 그렇게 되면 讀者는 人生이 所有했던 극히 아름다운 그러나 이미 상실한 樂園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 조화와 평강의 나라,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을 통하여 더 깊이 마음에 소유하게 된다. 기독교文學에 묘사된 다락한 세상의 비참한 형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재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文學은 항상 모든 惡과 추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에 대항해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기독교文學은 비기독교文學처럼 단순히 이 世上의 不調理와 惡한 것을 지적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일한 열쇠인 하나님의 손길과 극복의 길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文學은 죄악으로 인해서 돌아버린 世上을 짊어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재건해가는 소망을 전해 준다. 거짓과 증오, 테러와 폭력, 전쟁과 고독으로 뒤범벅이 된 이 世上을 건진한 것인냥 묘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 평화의 근원인 다시 싸매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文學은 사람에게 信仰과 生命을 직접 공급할 수는 없지만, 信仰을 가능한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의미깊은 것인가를 증거할 수는 있는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Ernsf Joset Krzywon: Literaturwissenschaft und Theologie.—Elemente einer hypothetischen Literaturtheologie. -In: Stimmen der Zeit. Bd. 192, 1974.

- E.J. Krzywon: Literaturwissenschaft und Theologie — Über literaturtheologische Kompetenz.
In: Stimmen der Zeit. Bd. 193. 1975.
- Gisbert Kranz: Lexikon der christlichen Weltliteratur. Herder Verl. Freiburg-Basel-Wien.
1978.
- G. Kranz: Europas christliche Literatur von 500 bis 1500. F. Schöningh Verl. München-
Paderborn-Wien. 1968.
- Walte: Jens/Hans Küng: Dichtung und Religion. Piper München-Zürich. 1988.
- Karl-J. Kuschel: Weil wir uns auf dieser Erde nicht ganz zu Hause fühlen.-12 Schriftsteller
über Religion und Literatur. Piper 1985.
- Hg. von Helmut Koopmann/Winfried Woesler: Literatur und Religion. Herder. Verl. Freib/
Br. 1984.
- Gottfried Meskemper: Falsche Propheten—unter Dichtern und Denkern. Berneck 1983.
- Gisbert Kranz: Christliche Dichtung heute. Schöningh Verl. Paderborn 1975.
- Dietmar Kamper/Christoph Wulf(Hg.): Das Heilige. Seine Spur in der Moderne. Athenäum,
Frankf/M. 1987.

Literatur und Religion

—Theorie der deutschen christlichen Dichtung und Literaturtheologie—

Tschol-za Kim

In dieser Aufsatz ist unternommen, ein neues Forschungsgebiet der Germanistik an der deutschen Universität seit etwa 1975, nämlich <Literatur und Religion> zu überblicken, indem wir Theorien von deutschen christlichen Dichtung und Theorien des Literaturtheologie, die bis jetzt aufgekomen sind, vermitteln,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es nicht möglich ist, die kleinen Forschungsartikeln von unserem Thema in vielen Zeitschriften aufzufinden, und daß man diese Arbeit daher nur mit einigen wichtigen schon gedruckten Büchern beschränken muß.

Das wichtigste im ersten Teil dieser Arbeit versucht, wie die allgemeine Stimme des deutschen Germanisten zu unserem Thema steht.

In einer Symposium an der Katholisch-Sozialen Akademie des Bistums Munster am 17~19. Juli 1981 wurden zwei Themen behandelt.

Das eine ist: ob die Literatur vor allem im 18. und 19. Jahrhundert fähig gewesen sei, den Wahrheitsanspruch der Dichtung, der seit der Aufklärung der Theologie gegenüber aufgetreten ist, zu verdeutlichen und aufrechtzuerhalten.

Die andere ist: ob die Dichtung die Religion einsetzen konnte, oder ihr Absolutheitsanspruch Haresie gewesen sei?

Der bekannte Germanist Prof. B.v. Wiese äußerte dringend als ein Vorträger an dieser Symposium die Zusammenarbeit der Dichter mit Theologen. B. von Wiese hat darauf hingewiesen, daß Geistesgeschichte auch ohne Theologie nicht treiben laßt, so wie ihrerseits die Theologie auch mehr die Dichtungsgeschichte einlassen muß. "Inmitten einer immer glaubenloser werdenden, in Perfektion und Rationalisierung geradezu erstickenden gesellschaftlichen Welt, die von möglichen apokalyptischen Katastrophen umstellt ist, steht Religion mit der Dichtung, so verschieden sie sein mögen, vor der gleichen Aufgabe, das Mysterium von Geburt und Tod, dem alle Menschen unterworfen sind, nicht zu verdrängen, sondern es als zeitloses Urphänomen allen Lebens in unserer späten geschichtlichen Situation wahrzunehmen und weiterhin nach seiner möglichen Sinngebung

zu suchen."

Der zweite Teil dieser Arbeit hat die Wortbedeutung von *Christlicher Literatur* in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untersucht.

Der dritte Teil hat zusammengefaßt die Theorien der Christlichen Dichtung. Das Christliche in der Dichtung liegt weder an dem Thema noch an der Teilnehmer an dem Christentum.

Christliche Literatur zu forschen heißt nicht, vom Stil abzusehen und sich auf der Suche nach dem Christlichen nur auf Stoffliches und Inhaltliches zu beziehen.

Die Form eines Werks der Christlichen Literatur zu studieren, mußte die Literaturwissenschaft besonders reizen, zumal bei Dichtung, die das Christliche nicht in traditionell biblischer, theologischer oder liturgischer Sprache darstellt, sondern sprachlich, strukturell, ästhetisch, imaginativ neu inkarniert.

Der vierte Teil der Arbeit untersucht bei den Arbeiten von Ernst Josef Krzywon, um was es sich bei der Literaturtheologie handelt. Mit dem Begriff "Literaturtheologie" soll keineswegs der Übergang von der Literatur zur Theologie als zu einer andern Disziplin gemeint sein, sondern eine Teiltheorie der Literaturwissenschaft im Sinn einer werktranszendierenden Analyse, die unbedingt ihre Ausgangsbasis auf die Literatur bezogen bleibt.

Ähnlich und gleich intensiv wie die Literaturwissenschaft ist auch die Literaturtheologie am Sprachkunstwerk als ästhetischem Gegenstand interessiert, transzendiert jedoch diesen Gegenstand unter dem Aspekt einer zusätzlichen und komplementären, werktranszendierenden theologischen Analyse.

Einer Literaturtheologie wird es also ebenfalls darum gehen, den Vorrat an theologischen Erkenntnissen zu bergen, der in der Literatur selbst und vornehmlich in der schönen Literatur enthalten ist, ihre theologische Relevanz und ihr theologisches Bewußtsein zu analysieren. Dies wird nur erreichbar sein, wenn die Literaturtheologie eine literaturspezifische Hermeneutik in Anwendung bringt. Dabei sind als Ausgangsposition verschiedene Standpunkte möglich.

Der letzte Teil dieser Arbeit untersucht das Kriterium des Christlichen bei der Rezeption durch die Leser. Ein christlicher Autor kann, trotz seiner Intension, ein Werk schreiben, das von den christlichen Lesern nicht als christliche Literatur rezipiert wird. Dazu können drei Gründe haben: Der Glaube des Autors ist defizitär; oder das Christliche, wie es im Werk realisiert wurde, ist defizitär; oder der Glaube des Rezipienten ist defizitär.

Die Aufnahme der Christlichen Literatur bei Nichtchristen hat auch durchaus positive

Wirkung. Diese Wirkung ist nicht ästhetischer Art. Denn obwohl christliche und nicht-christliche Literatur durch das Kreuz geschieden sind, haben sie im Menschlichen vieles gemeinsam. Christliche Literatur hat sich in jeder Generation den jeweils neuen geistigen,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gestellt und eine Antwort darauf gegeben und damit einen Impuls zur Aktion.

Sowohl Christliche Dichtung wie schöne Dichtung kann den Menschen nicht direkt erlösen. Kein Leser wird durch das bloße Lesen Christlicher Literatur, obwohl er von ihr intellektuell imaginativ oder emotional noch so ergriffen sein mag, den Glauben existentiell vollziehen. Erkennen, Sich-Vorstellen, Empfinden ist nicht Sein.

Christliche Literatur ist also kein Ersatz für Gebet und Gebetsvollzug. Aber sie kann dem Leser in seinem Glaubensleben zur Hilfe kommen, indem sie seine Verkrampfungen löst, ihn aus sich herausführt, ihm den Horizont erweitert und bewußt macht, was einem Menschen möglich ist, der Gott liebt.